

# “올해 학사일정 파행 없다” 개학 준비 총력

### 광주시 교육청, 19일까지 새학기 집중 준비기간 원격 수업 역량 강화 등 ‘실시간 쌍방향 수업’ 만전 코로나19 방역지침 강화...외부인 출입 원천 봉쇄

지난해 ‘코로나19’로 유례없는 학사일정을 소화했던 일선 학교들이 개학을 앞두고 코로나19 극복과 안전한 학교운영 준비에 바빠졌다.

3월 정상개학에 맞춰 학사일정을 짜는 한편, 만일의 상황에 대비 원격수업 역량을 강화하는 등 ‘실시간 쌍방향 수업’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는 모습이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원격수업이 병행되더라도 유치원과 초등학교 1~2학년, 고등학교 3학년, 특수학교 재학생은 우선 등교수업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16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초등학교의 경우 오는 19일까지 새 학기 집중 준비기간을 운영해 안정적인 학사운영 여건 조성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

고 있다. 이 기간 학교 교직원들은 학교 교육 과정을 편성하고, 학사 운영 계획을 수립한다. 기초학력 보장과 학습격차 해소 방안 등을 내실 있게 반영하며 학교 교육 활동을 준비하고 있다.

코로나19 상황에 대비해 학교 보건과 방역 준비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실시간 쌍방향 화상수업 연수, 원격수업 기기 대여 준비 등 온라인 개학에 대비한 원격수업 준비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개학하는 광주지역 각급 학교는 학생과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실 입실(등교) 전과 점심시간 등 하루 2차례 발열 검사를 반드시 실시하기로 했다.

동거인 중 코로나19 증상이 의심돼 자가격리자

가 있는 학생과 교직원들은 자가격리 중인 동거인이 격리 해제될 때까지 등교 또는 출근을 중단하는 데, 이들의 출석과 근무를 인정하기로 했다.

시 교육청은 개학하면 ▲교실 등 창문 개방 ▲화장실 등 세면대에 손 세척제와 종이 타월 비치 ▲보건용 마스크(학생 1명당 2장), 체온계(교실 각 1개) 등 방역물품 확보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학생과 교직원들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방식의 학교 운영을 원칙으로 하고, 코로나19 의심 증상자 대기를 위한 별도의 공간(1층 위주)을 마련해 외부인의 학교 출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전남 역시 올해는 정상적으로 신학기를 맞이하기 위한 준비에 여념이 없다. 등교 수업과 온라인 수업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겨울방학 기간 내내 최선의 준비를 하고 있다.

개학연기 없이 학사 일정을 시작하고, 지난 1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밀집도 등 학사 운영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 등교수업 확대를 통한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배움의 일상회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등교수업 확대를 고려한 학교방역 체계 및 지원 강화를 위해 충분한 급식시간 확보와 동선 관리, 가림막 설치, 학생지도 등을 통해 밀집도 완화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교육과정 재구성으로 자유학기활동은 학교별 등교·원격수업에 모두 운영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대응체계 구축과 돌봄 확대·내실화에도 집중할 계획이다.

사·도교육청은 신학기 학급별·학년별 등교·비대면 수업 방식은 코로나19 유행 상황을 보고, 방역 당국 등과 협의해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교묘의 경우 현재 겨울 방학 방과후수업이 전면 금지된 상태로 코로나 확진자 추이에 따라 등교·비대면 수업 방식이 결정될 것”이라며 “학교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지 않도록 방역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 학폭 실시간 관리 전남교육청 온라인시스템 개통

전남교육청은 각급 학교에서 발생한 폭력 처리 상황을 실시간으로 관리·지원할 수 있는 ‘학교폭력 사안 처리 온라인지원시스템’을 구축해 오는 3월 개통한다고 16일 밝혔다.

도 교육청은 최근 학교에서의 가장 큰 부담인 학교폭력 관련 행정업무 부담을 줄이고 신속 정확한 사안 처리, 맞춤형 지원을 위해 이러한 시스템을 개발했다.

시스템은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보고와 접수, 심의 또는 자체 해결 등 단계별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관리·지원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특히 발생유형, 파가해 학생 조치현황 등 도내 22개 시·군 교육지원청별 학교폭력 통계를 제공해 학교폭력 사안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다.

도 교육청은 최근 학교폭력 담당자들에게 시스템 사용법을 익히도록 하고 별도의 사용매뉴얼을 보급한 뒤, 오는 3월 1일 시스템을 공식 개통할 방침이다.

이병삼 전남도교육청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은 “그동안 학교 현장에서 학교폭력과 관련된 행정업무 부담이 상당히 컸다”면서 “이번에 개통되는 온라인지원시스템을 통해 행정업무 경감은 물론 학교-지원청 간 소통이 강화되는 등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더욱 능동적인 대처를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 젓은 눈에 ‘포트홀’ 빈번...운전 주의하세요

### 광주서만 2810건 달해

올겨울 젓고 많은 눈으로 광주에서 3000건 가까운 도로 파손(포트홀)이 생긴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광주시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3일까지 지역에서 2810건의 포트홀이 발생했다. 연간 포트홀 발생 건수는 2016년 1만 1952건, 2017년 6278건, 2018년 1만 312건, 2019년 6486건, 지난해 1만

1616건이었다. 올해는 눈이 얼었다 녹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도로 파인 현상도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차량 운전자들이 불편을 겪고, 자칫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 광주시는 상시 운영하던 보수 인력을 늘려 도로를 정비하고 있다. 포트홀이 대규모 발생한 서문대로 등 9개 노선 17km는 재포장을 서둘러 불편을 줄이기로 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16일 오후 광주시 광산구 빙고로대로에서 광주시 종합건설본부 도로관리과 직원들이 도로파임(포트홀) 복구작업을 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동네에 생태놀이터 생겼다 광주 산수동 창의적 놀이공간

광주시 동구 산수동에 체험과 모험을 통해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생태어린이공원이 조성된다.

16일 동구에 따르면 산수동 울곡어린이공원(총 면적 약 4200㎡)을 전면 리모델링해 아이들을 위한 다목적 생태놀이공간으로 활용할다.

동구는 지난해 시민참여예산으로 확보된 사업비 3억 원을 투입해 그동안 안전성과 편의성 보완이 요구됐던 산수동 울곡어린이공원을 리모델링해 체험공간으로 변화시킨다.

동구는 이용자 현황조사, 지역주민·울곡초등학교·지역아동센터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올해 상반기 내에 다목적 생태놀이공간을 준공할 방침이다.

공사가 마무리되면 너트길 유아숲 체험 프로그램 등 다양한 학습프로그램과 연계해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임택 동구청장은 “앞으로도 우리의 미래세대인 아이들의 모험심과 창의력을 자극하는 것은 물론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몸과 마음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특색 있는 사업을 적극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광주 남구, 장애인 권리구제 나선다

### 연 2회 대상자 찾기...서비스 누락 방지

광주시 남구가 자신의 사회복지 혜택을 챙기지 못하는 장애인들의 권리 구제에 나선다.

광주 남구는 보호가 필요한 관내 장애인의 편의 증진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올해 상반기와 하반기 등 2차례에 걸쳐 장애인 권리구제 대상자 찾기에 나선다.

장애인복지법과 사회복지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14가지 복지서비스 사업에 대한 수혜 대상자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16일 남구에 따르면 올해 장애인 권리구제 발굴 대상자는 작년 말 기준으로 지적 장애인 4522명과 청각 장애인 1741명, 시각 장애인 1234명, 뇌병변

장애인 1033명, 정신 장애인 634명 등 관내 등록장애인 1만 1231명이다.

남구는 14종의 장애인 복지서비스 사업을 모니터링하는 ‘행복e음 시스템’을 활용해 각 사업별 권리구제 대상자를 추출한 뒤 동 행정복지센터에 서비스 누락 대상자 명단을 통지해 수혜 대상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서비스 신청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장애인 권리구제 대상자 발굴 작업은 상반기의 경우 오는 24일까지 2주간 진행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는 오는 7월 19일부터 8월 5일까지 진행할 방침이다.

상반기 조사를 통해 권리구제 대상자로 발굴한 장애인은 오는 25일부터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통해 서비스 이용 신청서를 제출한 뒤 누락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 신청은 본인이 직접 방문에 신청하거나,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이 대행 신청할 수도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

**인터넷 광주일보**  
www.kwangju.co.kr

## 한반도를 지켜낸 열일곱 소년의 힘찬 ‘깃발’

“만약 선조임금이 의주에서 압록강을 건넜다면 조선이란 나라는 사라지고 없을 것이다.”

### 이계홍 역사소설 깃발 ①~⑤

바다에는 **李충무공**, 육지에는 **鄭충무공**이 있었다!

총무공 금남군 정충신 — 그는 임진왜란에서부터 병자호란 직전까지 오직 군인 외길을 걸어온 인물로 그 일생은 드라마적 파노라마 그 자체이다. 이괄의 난을 평정한 공훈으로 ‘금남군(錦南君)’에 봉군됐으며, 광주광역시 금남로는 정충신의 업적을 기려 시호인 금남군에서 유래되었다. 60년 생애 덕장으로 명성을 떨친 충무공 정충신 후손의 일대기!

◆ 신국판 | 310-348쪽 | 각권 값 13,000원

외항선 선장 출신, 고려대 로스쿨 교수의 바다이야기

**선장 교수의 고향 사랑**  
(바다와 나의 연결시킬 수 있는 바다관련 생활 에세이 13편 등 모두 48편을 실었다. 김인현 지음 | 신국판 | 340쪽 | 값 15,000원)

2020년 신간!

정충신, 그는 누구인가?  
임진왜란에서부터 병자호란 직전(선조)에 이르기까지의 정충신 후손의 일대기

2021 신간

문화관광부 우수교양도서 선정·제5쇄 발매중

**한 출판인의 자화상**  
지난 반세기 동안 출판의 외길을 걸어온 저자의 자화상이며, 제목 그대로 저자가 살아온 삶 자체이다. 윤형두 지음 | 신국판 | 528쪽 | 값 15,000원

제국주의 일본은 한반도에서 무슨 악행을 저질렀는가!

**알수록 이상한 나라 일본**  
왜 일본 정권은 침략주의 과거사를 미화美化하는가에 역사 객관성을 추구하는 학자들을 국적으로 모는가! “역사를 모르는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정일성 지음 | 신국판 | 332쪽 | 값 15,000원

정유재란 7주갑을 맞아 떠난 한중일의 공동연구서

**정유재란사 - 한중일 공동연구**  
7년전쟁의 종전 7주갑이 되는 2018년 11월의 노량해전에 맞춰 펴낸 책. 정유재란을 잊혀진 전쟁으로 방기해서는 안 된다. 조원래 외 지음 | 4x6배판 양장 | 688쪽 | 값 70,000원

www.bumwoosa.co.kr 전화 : 031)955-6900~4 예금계좌 : 054-24-0001-338 국민은행 예금주 : 범우사(윤형두)